

광주 공기업 인사 전횡·비리·무사안일 도 넘었다

“강도 높은 혁신방안 마련해야”

이용섭 광주시장, 공감회의

“일부 산하 공기업 제 역할 못해 ‘공직자 기본’ 청렴... 신뢰 얻어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일 “산하 공기업의 인사 전횡, 비리, 무사안일, 무능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하극상 등이 도를 넘어지고 있다”면서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공감회의에서 “일부 산하 공기업들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께 걱정만 끼치고 있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승진하거나 주요보직으로 영전하

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노조가 공단 이사장 인사방식에 불공정성을 제기한 광주환경공단의 인사 논란 등이 도를 넘어 섰다는 것.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공공기관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공직자의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청렴입니다. 청렴해야 일이 공정해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청렴을 강조했다.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 시장이 결국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각만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적재적소 인사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일부 기관장은 임기를 얼마 앞두고 자기사람 심기 인사로 조직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등 매우 구태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산하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정 실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하기관 혁신TF를 바로 구성해 산하기관 인사·조직·청렴 등 전 분야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정밀한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7월 이용섭 시장은 “임기직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임명권자는 시민권익과 광주의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기관장은 바꿀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의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물갈이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파주감악산 출렁다리에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현장.

/파주시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지역명소 등급

TV프로그램서 다수 소개

파주시의 감악산 출렁다리가 인기 드라마와 예능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지난 2016년 9월 개장 당시 SBS 인기 드라마인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의 촬영지로 등장해 첫 선을 보였다.

이후 KBS ‘다큐멘터리 3일’, YTN ‘황금나침반’, 채널A ‘관찰카메라’, KBS2 ‘생생정보’ 등 각종 시사 교양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전국적인 출렁다리 열풍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높였다. 지난 9월 2일에는 KBS2TV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촬영이 이뤄져 오는 10월 14일 방영을 앞두고 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후 각종 언론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 내방객들의 입소문과 SNS 등을 통해 유명세가 빠르게 퍼져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급부상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 개장 2년도 채 안 돼 누적된 방문객 140여만 명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다른 출렁다리와 달리 접근성이 용이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불과 10여 분 거리에 출렁다리가 위치하고 있어 어른스와 어린이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수호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감악산 힐링파크 내 먹거리존을 분양하고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찾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감악산 출렁다리’가 되도록 관광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승열 기자 kimsy@

인천시-세계은행, 지역발전 상호협력 논의

(한국사무소)

빈곤퇴치·컴팩트 스마트 시티 등 개발도상국과 노하우 공유하기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새로 취임한 소훈섭 소장을 만나 세계은행과 인천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회원국(189개)의 경제개발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국제부흥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의 다섯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14년 8월 문을 연 한국사무소는 역시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적립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WB 한국사무소는 지난 4월 2기 협정(2018~2020)을 체결하고 기존 6개 부서에 신규 2개 부서(지속가능개발, 취약국 지원)를 신설하고 인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소훈섭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신임소장을 접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을 증원하는 등 한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장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새로 부임한 소훈섭 소장에게 취임 축하와 함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전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물론, 컴팩트 스마트 시티 개발 등 인천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인천이 의미 있는 협업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등 국제기구와 시의 협력사업을 통해 인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제

기구 도시로서의 시민 체감 확대, 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 인천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에서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국제기구 견학 및 학교 강연,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훈섭 소장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인천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향을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경영 프로그램 신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자금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경영을 돕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은 현재 도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필수요건인 ‘창업경영교육 수료’를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취득하게 하고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은 단순히 자금지원 요건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창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경기도상권영향 분석 서비스 과정’을 신규로 추가해 인구통계, 점포분포

현황, 상권 내 교통·집객·주거형태 등 상권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게 했다.

아울러 최신 법령 및 트렌드를 반영해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지식재산권, 회계·세무 지식 및 근로기준법 알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총 13차시, 12시간으로 구성됐고, 진도율 80% 이상과 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 시 수료되며, 1회에 한해 추가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수강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홈페이지(www.dream.go.kr)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고성열 기자 ksc@

광주시, 분야별 TF 구성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

광주광역시시는 전 실국이 참여하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집행-평가-보상의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로드맵 수립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책임있게 참여토록 하기 위해 13개 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3개 TF는 자치안전, 산업육성, 문화관광, 복지건강, 교통도시, 환경생태, 청년, 여성, 창업, 기업지원, 투자유치, 사회경제, 고용서비스 등이다. /광주=오종일 기자

‘폭우 피해’ 장흥면서 수해복구 봉사

새마을운동 경기도 양주시지회

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마을운동 경기도 양주시지회는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양주시 장흥면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29일 오후부터 장흥면 일대에 400mm 이상 집중된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용춘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장을 비롯해 새마을회

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찾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 긴급한 피해는 정리가 되었지만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춘 지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주=고성열 기자 ksc@

고양시, 16일 ‘2018 펫스티벌’ 팡파르

오는 16일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 문화공원에서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에 발맞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체험의 장 ‘2018 고양 펫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행복한 동행, 펫티켓을 지켜!’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상식 OX퀴즈, EM용액 만들기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티켓 빙고게임’, ▲재활용품을 이용한 ‘에코하우스 및 캣타워 만들기’ 등



으로 이뤄진다. 특히 ‘에코하우스 및 캣타워 만들기’는 당일 심사를 통해 상장도 수여된다.

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요청을 제시하는 기초교실, 사회화교실, 산책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김승열 기자 kimsy@

평택도시공사 추석 맞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홍)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 귀성객,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2일~26일까지 총 5일간 무료 개방되며, 대상은 평택도시공사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총 46개소이다.

그러나 통복전통 노외주차장은 연휴 기간 주차장내 혼잡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22일 18:00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사업자는 연휴기간 상황근무를 편성·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평택시민과 고향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